

특별기고

친 자연적 설계 - 에너지와 공간 배치



장덕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여러분께서는 집은 남향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동남향집이지만 아무튼 집의 정면은 남쪽을 향하고 있어야 좋다는 말이다.

태양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 결과 탄수화물과 산소가 만들어지고, 동물은 식물이 만들어놓은 탄수화물과 산소를 섭취하면서 살아간다.

살면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인체는 태양에너지를 받아야 생리적인 기능을 원활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래서 집을 들어놓을 때 태양에너지가 집의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은 좋지가 않다. 사람마다 그 신체적 정성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태양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곳에 공간을 배치하여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수동적 태양에너지-passive solar energy>이라고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능동적 태양에너지 이용법은 초기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연이 주는 비용이 들지 않는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고려한 집의 공간배치가 친 자연적인 집의 설계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되는 것이다.

13년째 청소봉사 이웃돕기 화제

방축2리 부녀회원 30여명 솔선수범



13년째 방축2리 전 지역을 매월 1회 순회하며 각종 쓰레기를 수집하고 분리하여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 온 부녀회가 있어 화제다. 포천시 가산면 방축2리 부

녀회(회장 이정옥)는 12월9일 오전10시부터 방축2리 일대를 30여명의 부녀회원들이 순회하며 청소해 나갔다. 여기에는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나서 쓰레기

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일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모은 쓰레기는 마을회관에서 분리한 후 버릴 것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빈병이나 비닐 등은 고물상에 팔아 기금을 모으고 수재만들이나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달하고 위로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보육상담 12

우리아이 잘 자라고 있는 건지요?

[질문] 20개월 된 남자 아이입니다. 최근 2~3주 사이에 아이가 많이 지루해 하며, 자주 밖에 나가자고 때를 쓰곤 합니다. 나가서 놀면 좋아하며 잘 놀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 뿐이지 또 집에 들어오면 시큰둥하며 잘 놀지 않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서인지 내가 집안 일을 할 때면 혼자서 두 팔 놀기도 하는데, 아빠만 집에 있거나 누가 놀러오거나 하면 때를 쓰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가끔 나가서 또래를 만나거나 자기보다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좋아서 표현하는 건지, 꼬집거나 깨물기도 합니다. 이유를 말해주며 타일러 보지만 잘 안 고쳐 지네요. 제일 큰 고민은 저와 있을 때 지루해 한다는 것, 요즘 들어 TV시청이 잦아들었다는 것, 책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 말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하는데 약 다섯, 여섯 단어 정도 하는 것 ~ ~ ~ 그래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생각이 듭니다.

[답변] 20개월 정도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생기면서 고집도 피우고, '내가 할래', '싫어'라는 말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자연스러운 시기이므로 '음 ~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기뻐해주세요. 깨물거나 꼬집는 행동은 말이 잘 안되어 답답할 때 또는 화가 날 때 나타납니다. 상황을 잘 보셨다가 언제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물거나 깨무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



인경준 중앙목수어린이집 원장 (031-534-0277)

목회단상
좁더 다가서는 마음



거리는 온통 세모(歲暮)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경쾌(輕快)하게 울리는 징글벨 소리는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 만들기에 바쁘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징글러운 소리가 되지 않도록 이웃에게로 다가 서 보자. 예수께서 이땅에 오신 목적은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주위를 보게 하고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 아픔과 외로움에 자리에서 비껴서지 말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웃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는 본을 보여 주었다.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사랑의 쌀" 판매 수입금 이웃돕기
포천소방서 관의용소방대 100만원 성금 기탁

포천소방서 관의용소방대(대장 안윤빈)는 지난달 30일 대원들이 협력으로 직접 생산한 무농약 인증 쌀을 생산하고 판매한 수입금 전액 중 도지세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비용을 제외한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관인면에 기탁했다. 관의용소방대에서는 이번 행사



포천소방서 관의용소방대는 지난달 30일 대원들이 협력으로 직접 생산한 무농약 인증 쌀을 생산하고 판매한 수입금 전액 중 도지세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비용을 제외한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관인면에 기탁했다.

이웃돕기 사랑의 일일찻집

12월5일, 희망을 열어가는 사람들 주최

희망을 열어가는 사람들(대표 이주훈)은 12월5일 포천시 신읍동에서 이웃돕기 사랑의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날 일일찻집은 중심신약회가 후원해 마련했으며 수익금은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망을 열어 가는 사람들은 지난 7월 8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했으며 지역의 독

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모금한 수익금으로 쌀 100여포(450만원)를 구입해 각 지역의 회원들이 추천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 40여가구에 12월11일부터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꽃샘 종합선물세트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 담은...
건강을 선물하는 알뜰가격 2만원대 부터...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고려홍삼골세트, 꽃샘특선봉밀1호, 꽃샘기획세트1호, 꽃샘기획세트2호, GS기획세트, 꽃샘프리미엄골세트1호, 꽃샘토종고기구3호, 꽃샘토종고기구1호, 꽃샘꿀차세트, 꽃샘5호, 꽃샘8호, 꽃샘4호